

뉴스 라운드업

- 이란-걸프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해협 인근 폭발음 속 WTI 77.29 달러(+2.75%)·미 10 년물 4.676%(+6.1bp)로 유가·금리 동반 상승
- 미 7 월 신규실업수당 청구 19.9 만건·기업 감원계획 2 년래 최저, 2 분기 생산성 1.4%로 예상치(0.6%) 큰 폭 상회 — 노동시장 안정과 임금발 물가압력 완화 동시 확인
- 지정학 리스크에도 S&P500·나스닥 소폭 조정(-0.18%·-0.06%), VIX 는 15.14(-4.18%)로 하락, 달러인덱스는 99.95(+0.26%)로 최근 약세서 반등
- 코스피 전일 -4.58% 급락, 최근 랠리 흐름과 상반 — 항셍도 중국 보험주 규제 우려로 -1.49% 하락, 밤사이 미국발 이벤트는 미반영

호르무즈 긴장에 유가·금리는 뛰었지만 미 노동지표는 물가 부담 완화를 재확인했다

전일 밤사이 최대 재료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였다.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국들에 미국의 군사행동을 만류해 달라고 압박하면서 미국을 막지 못하면 걸프 인프라도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, 호르무즈해협 입구 인근 케숨섬에서는 적대적 표적에 대한 조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음이 포착됐다는 이란 국영매체 보도도 나왔다. 이 여파로 WTI 는 배럴당 77.29 달러(+2.75%)까지 올랐고, 금요일 발표될 7 월 미 고용지표(로이터 설문 기준 8 만명 증가 전망)를 앞두고 미 10 년물 국채금리도 4.676%(+6.1bp), 2 년물은 4.247%(+6.2bp)로 함께 상승했다. 다만 이 같은 리스크 확대에도 S&P500(-0.18%)과 나스닥(-0.06%)은 소폭 조정에 그쳤고, 유럽 스톡스 600 은 오히려 +0.16% 강보합 마감했다. 변동성지수 VIX 도 15.14(-4.18%)로 낮아져 시장이 이번 지정학 리스크를 아직 위험자산 회피로까지 연결짓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는데, 이는 최근 이어져 온 위험 선호 우위라는 기존 판단과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. 달러인덱스는 99.95(+0.26%)로 최근 6 주래 저점 부근에서 반등했는데, 이는 그간 확인돼 온 광범위 달러 약세 흐름과는 결이 다른 하루짜리 움직임으로,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단기 안전자산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.

같은 날 나온 미국 노동시장 지표는 오히려 견조한 그림을 보여줬다.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9 만 9 천 건으로 소폭 늘었지만 예상치를 밑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, 7 월 기업 감원계획은 전년대비 27% 급감한 3 만 3,429 건으로 2 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. 특히 2 분기 비농업 생산성은 전기비 연율 1.4% 증가해 예상치(0.6%)를 크게 웃돌았고, 단위노동비용은 1.3% 상승에 그쳐 예상치(2.1%)를 밑돌면서 임금발 물가압력이 우려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켰다. 이는 인공지능(AI) 투자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과 맞물리는데, 실제로 일부 연방준비제도(Fed) 위원들은 AI 관련 투자 급증이 금융안정에 줄 수 있는 리스크를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다. 다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는 AI 발 버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. 현재 연방기금선물 시장이 9 월 이후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들에서 오히려 추가 인상 쪽에 더 높은 확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, 이날 확인된 임금비용 둔화는 그 인상 경로에 대한 근거를 다소 약화시키는 재료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.

반면 전날 아시아 증시는 이 같은 밤사이 재료를 아직 반영하지 못한 채 마감했다. 코스피는 전일 -4.58% 급락하며 마감했는데, 이는 최근 며칠간 이어져 온 랠리 흐름과는 뚜렷이 배치되는 결과로, 이번 조정이 일시적 되돌림인지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는 오늘 서울 증시 개장에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. 항셍지수도 -1.49% 내렸는데, 중국 매체 차이인이 당국의 국경간 자산관리 상품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도한 이후 AIA·푸르덴셜 등 홍콩 상장 보험주가 타격을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. 닛케이는 -0.93%, CSI300 은 -0.15% 내리며 동반 약세를 보였다. 이들 아시아 지수는 모두 전일 오후 마감치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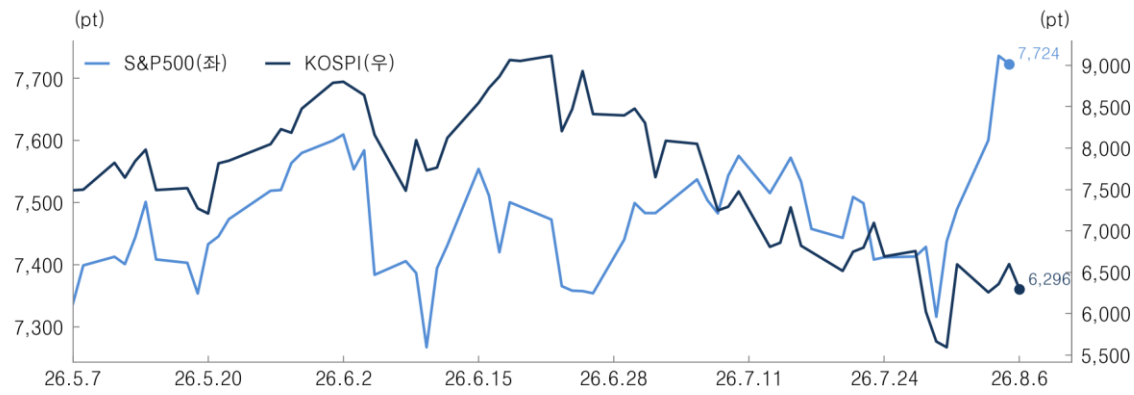
간밤 미국발 고용·생산성 지표와 중동 리스크 확대는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, 오늘 개장 이후 반응이 관전 포인트다. 한편 멕시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6.50%로 만장일치 동결하며 6 월부터 이어온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갔고, 성장 하방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목표 수렴 시점을 내년 말로 늦춰 잡았다.

글로벌 주요 자산

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· 직전 확정 종가 대비 · Trading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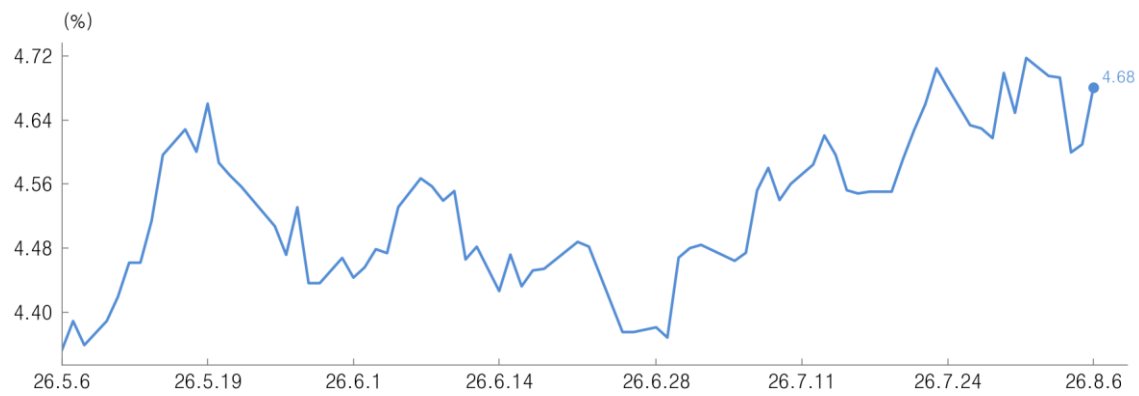
구분	자산	가격	전일 대비	기준
주식	S&P 500	7,709.96	-0.18%	8/6 종가
	나스닥	26,348.34	-0.06%	8/6 종가
	STOXX 600	658.20	+0.16%	8/6 종가
	닛케이 225	65,683.04	-0.93%	8/6 종가
	CSI 300	4,651.31	-0.15%	8/6 종가
	KOSPI	6,296.38	-4.58%	8/6 종가
	항생	25,530.28	-1.49%	8/6 종가
환율	달러인덱스(DXY)	99.95	+0.26%	8/6 종가
	달러/엔	158.45	+0.02%	8/7 종가
	유로/달러	1.15	-0.03%	8/7 종가
	달러/원	1,423.16	+0.09%	8/6 종가
	달러/위안	6.75	-0.01%	8/6 종가
금리	미국 10 년	4.676%	+6.1bp	8/6 종가
	미국 2 년	4.247%	+6.2bp	8/6 종가
	일본 10 년	2.769%	-3.9bp	8/6 종가
	독일 10 년	3.148%	+4.3bp	8/6 종가
	한국 10 년	4.184%	+0.5bp	8/6 종가
크레딧	미국 HY 스프레드	275bp	+2.0bp	8/5 종가
원자재	WTI	77.29	+2.75%	8/6 종가
	금	4,239.44	-0.25%	8/6 종가
	구리	6.71	-0.27%	8/6 종가
변동성	VIX	15.14	-4.18%	8/6 종가

S&P500 vs KOSPI — 최근 3 개월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— 최근 3 개월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

권역	요약
미국 뉴스 37 건 HIGH	• 미국 2 분기 비농업 생산성 +1.4%, 예상의 2 배 이상 상회 — 근로자 임금 비중은 역대 최저 2 분기 시간당 산출(비농업 생산성) +1.4% 기록 (로이터 설문 +0.6% 예상, 1 분기 +0.8% 상향수정), 단위노동비용 +1.3% (예상 +2.1%), 임금 증가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못 미침 - 근로자 GDP 점유율 52.9%로 역대 최저 기록 (1 분기 53.7%), AI 투자 가속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분이 주로 기업 수익·주주 가치로 귀결되는 구조 심화 - 주간 실업급여 신청 199,000 건 (예상 하회), 7 월 구조조정 27% 감소로 33,429 명 기록 (2 년 최저), 노동시장 안정성 지속 • 미국 장기채 수익률 상승, 호르무즈 지정학 긴장으로 유가 배럴당 \$3 이상 급등 - 이란 의회 위원회,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금지 법안 검토 소식으로 유가 급등 (브렌트유 배럴당 \$80 상회), 미국·이스라엘의 해협 접근성 우려 고조로 지정학 프리미엄 확대 - 시장, 오늘 발표 예정인 7 월 미국 고용지표(로이터 설문 기대값 +80,000 명)를 금리 경로 결정의 핵심 신호로 주시 중, 지정학 리스크와 연준 통화정책 선택의 교점 형성 • 베센트 재무장관, 연준의 과거 금융위기 대출 시설 활용해 처음으로 일본 엔화 시장 개입 -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, 2008 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이 도입한 대출 시설을 재활용해 일본 엔화 약세 포지션의 청산을 유도, 사전예고 없는 개입 방식으로 정책 기조 전환 - 목표는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의 금리 인상 압박(강제 긴축) 완화 및 동아시아 금융 불안정 사전 차단, 달러화는 엔화 대비 상승으로 최근 개입으로 인한 손실 일부 회복 중 - 시장 평가: 연준 기조 변화와 미-일 협력 시스템 재편 신호로 해석 • 연준 고위 인사들, 과열하는 AI 투자의 금융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본격 논의 - 뉴욕연준 총재 윌리엄스, 현재 AI 투자 규모에서 버블 신호는 아직 없다는 입장인 반면, 일부 고위 인사는 금융 안정성 우려 제기 - 배경: 데이터센터·AI 칩 제조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전력 소비 및 인프라 투자 가속화, 자금 조달 과열 가능성 경고 (2008 년 주택 버블 수준과의 직접 비교는 아직 이른 편) • 이라크 중앙은행, 연준으로부터 5 억 달러 현금 수령 - 이라크 국가통신사 보도, 연준이 \$5 억 규모 현금 달러를 이라크 중앙은행에 송금 (통화 안정성 및 국제 유동성 확보 목표) • 트럼프, 5 월 개시 이란 전쟁 진전 정체 — 이란-오만 거래 제안 대 국내 정치 압박 - 트럼프 대통령, 전쟁 초기 '수주 내 종료' 공언 대비 6 개월 교착 상태, 이란-오만 호르무즈 해협 거래(임시 협상) 제안 등장으로 외교 선택지 부상 - 정치적 압박: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연료비 인상 우려, 지지율 하락, 11 월 중간선거 압박으로 타협과 강경 노선 사이 선택 압력 고조 • 버지니아 주지사 스펜버거, NextEra-Dominion 66.8 억 달러 합병 규제 심사에 공식 개입 - 주지사, 버지니아 주 전력규제위원회(State Corporation Commission)에 정식 당사자 자격으로 참여 신청, 합병 심사 서류 열람 권한 및 질의 기회 확보 - 개입 조건: 전기료 인상 억제, 일자리 보호, 청정에너지 투자 확약 요구 (현재 제안이 기준 미달로 판단)

권역	요약
	• 캐나다 카니 총리, 트럼프의 비난에 노동자·기업 보호 강조로 응대 — USMCA 재협상 진행 ↳ 트럼프, 라스베이거스 연설(전일)에서 캐나다를 '못되먹었다(nasty)' 표현 및 '못된 법령' 언급, 카니 총리 반박 ↳ 캐나다 협상단, 워싱턴 협상 진행 중으로 USMCA 재검토 협상 본격화 신호, 국내 일자리·기업 이익 보호 입장 강조 • 독일 에너지사 RWE, 미국 해상 풍력 임차 취소로 12.2 억 달러 합의 ↳ RWE, 트럼프 정부와 \$12.2 억 규모 합의로 미국 수역 해상 풍력 임차 3 건 취소, 정부 에너지정책 기조(화석연료 중심) 부응 ↳ 자금 재배치: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 및 미국 가스 화력 발전소 투자 (RWE, 전년 미국 해상 풍력 사업 중단 이후 자금 활용 경로 마련) • 미국, 계획된 폴리실리콘 관세 징수 시기 연기 검토 • 미국 국무부, 쿠바 군부 인사 8 명·군 관련 기업 5 곳 제재 강화 ↳ 대상: 쿠바 군 대형 복합기업 GAESA 자회사, 무기 확보 및 중국·러시아 등 해외 군부와의 관계 유지 담당자 포함 ↳ 법적 근거: 트럼프 대통령이 5 월 서명한 행정명령 (쿠바 정부 관료·보안요원·지지자 제재 범위 확대) • 공화당 상원의원 4 명, 캘리포니아 차량 배출 규정(연방 기준보다 강화) 폐지 법안 제안 ↳ 배경: EPA 6 월 의회 제출로 트럼프 행정부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 후속 조치 ↳ 쟁점: 캘리포니아가 청정공기법(Clean Air Act) 하에 연방 기준보다 엄격한 차량 배출 규정 운영 중, 폐지 시 미국 자동차·에너지 정책 대전환 신호 • 미국 전력사 Evergy, 2 분기 조정 이익 \$0.88/주로 예상 상회 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주도 ↳ 이유: AI 중심 데이터센터, 가정·기업의 화석연료 전환(전열·전동차 확산) 등으로 미국 전력 소비 사상 최고속 증가, Evergy 대형 고객사 매출 호조로 귀결
유럽 뉴스 11 건 HIGH	• 아일랜드 7 월 세수 호조로 연누계 6% 증가, 다만 재정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↳ 소득세 연누계 +7.5%, 부가세 +9.7%, 7 월 법인세 +5.1% (€13 억) 수입 증가 주도 ↳ 지출 증가(전년동기대비 +7.4%) 가 수입을 초과하면서 7 월 말 재정수지 -€6 억으로 악화 (전년 동월 +€41 억) • 아일랜드 실업률 7 월 5.1%로 상승, 4.5 년 지속된 5% 이하 기록 단절 • 유럽 폭염 가중으로 이탈리아 사상 첫 전 주요 도시 최고 수준 폭염경보 발령, 헝가리·루마니아 전력 제약 심화 ↳ 이탈리아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주요 도시를 최고 수준(1 단계) 보건경보 체계에 올림 ↳ 헝가리 국영기관 건물 조명 전면 차단으로 에너지 절약 단행 중 ↳ 다뉴브 수위 급락으로 헝가리·루마니아 원전 출력 제약, 산불 피해 추가 확산 중 • 독일 공항 부지에서 폭발장치 장착 드론 발견, 연방검찰 기반시설 공격 수사 개시 ↳ 라이프치히/할레 공항(동부 드레스덴 인근) 부지에서 전일 저녁 폭발장치 완성 드론 적발 ↳ 연방검찰이 지역 검찰로부터 수사 인수하며 '운송·물류 기반시설에 대한 중대 공격'으로 규정

권역	요약
	• 유로존 10 년물 국채 수익률 소폭 상승, 호르무즈 협상 진전에도 유가 심리 회복 제한적 ↳ 독일 10 년물 국채금리(분트) +1bp, 3.12%로 상승, 2 년물 +2bp 상승 / 프랑스 10 년물 약 €80 억 발행, 평균 수익률 상승 ↳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에도 유가는 배럴당 \$81 수준 유지, 분석 기관은 \$75~80 범위 추정 ↳ 파운드화 1.35 근처 견조 지지, 미국 고용통계 발표 대기 중
중국 뉴스 3 건 HIGH	• 홍콩 보험상품 과세 계획으로 보험사 주가 하락 ↳ 차이신(Caixin) 보도에 따르면, 베이징의 홍콩 보험상품 세금 부과 계획 ↳ AIA(1299.HK)와 Prudential(2378.HK) 주가 하락 ↳ 금융감독 강화에 따른 은행권 리스크 노출 확대 • 미중 기술 갈등 심화, 팔로알토·화웨이 동시 규제 대상화 ↳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(CAC), 팔로알토 제품 사이버보안 검토 개시(국가 핵심정보기반시설 위험 명목) ↳ 중국 대사관(아르헨티나), 미국의 비자 취소로 인한 화웨이 협력 방해를 주권 침해로 비난 ↳ 미중 통상 긴장 심화 속 기술 분야의 상호 규제 확대
멕시코 뉴스 10 건 HIGH	• 멕시코 중앙은행 기준금리 6.50% 유지, 인플레이션 수렴 시점을 내년 말로 연기 ↳ 기준금리 동결 2 개월 연속, 2 년 초과 인하 사이클 종료 ↳ 헤드라인·코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완만하게 하락, 수렴 시점을 당초보다 연기 ↳ 인플레이션 상향 리스크 지속, 경제 하방압력도 예측기간 내내 예상
EM 기타 뉴스 29 건 HIGH	• 이란, 걸프산유국에 사전 통보 — 미국의 대이란 공격 지속 시 에너지 인프라 타격 ↳ 이란이 사우디, UAE 등 걸프 연안국에 직접 경고: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군사 행동이 계속되면 테헤란이 상대국의 석유·발전소·수도 인프라 공격 ↳ 사우디 등은 트럼프에 미군의 대이란 작전 지연과 외교 협상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보도 ↳ 이란 의회 위원회, 호르무즈 해협 통과 미국·이스라엘 선박 통항 금지 법안 심의 중 — 위반 시 선적 가치의 최대 20% 벌금 부과 예정 • 몰도바 중앙은행,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정책금리 50bp 인상 → 7.5% ↳ 몰도바 중앙은행이 어제 벤치마크 금리를 7.0%에서 7.5%로 인상 — 공급 충격 지속 속 소비자 수요 확대가 주요 원인 ↳ 중앙은행, 2026 년 말까지 물가 상승 후 2027 년 3 분기부터 목표 밴드(5% ± 1.5%)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 ↳ 제한적 통화정책의 계속 유지 필요로 판단 • 체코 중앙은행 기준금리 3.75% 동결 — 2026 년 GDP·인플레 전망 하향 ↳ 체코 중앙은행 이사회 만장일치(7-0)로 정책금리 3.75% 유지 — 6 월 인상 후 신규 거시지표 평가를 위한 관찰 국면 ↳ 2026 년 GDP 성장률을 기존 2.5%에서 2.2%로, 연간 인플레를 2.2%에서 2.0%로 각각 하향 조정 ↳ 미흐르 총재, 현 금리 수준을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'모든 선택지 열어둔' 상태에서 신규 데이터·인플레 리스크 추이 관찰 • 후티군 예멘 공격 강화, 중동 증시 약세

권역	요약
	↳ 이란 지지 후티군이 예멘 마리브·하드라마우트주 정부군 기지에 탄도미사일·드론 공격 → 정부군 30 명 이상 사망, 피해 확대 가능 ↳ 중동 증권 거래소 대부분 약세 마감 — 홍해·걸프만 유조선 공격 보도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 전망의 불확실성 • 말라위 중앙은행 정책금리 24% 동결 ↳ 말라위 준비은행, 정책금리를 24%에 동결(3 월 인상 후 2 회 연속) — 현 수준이 인플레이 하락 추이 지속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되, 목표 대비 여전히 높은 상황 지속 • 이집트 7 월 소비자물가 15.6% 상승 예상 — 6 월 14.3%에서 가속 ↳ 로이터 설문 13 개 기관 중위 예상: 이집트 7 월 도시 연간 소비자물가 15.6% (6 월 14.3%) ↳ 불리한 기저 효과와 식품·비식품 가격 상승 압력 확대가 원인이며, IMF 협력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보조금 축소가 소비자 부담 확대 견인 •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 우크라이나 화물기 인근 폭약 드론 발견 ↳ 8 월 6 일 독일 라이프치히/할레 공항에서 발견된 드론 폭약이 고급 군사 등급 — 인근 우크라이나 화물기가 군사 탄약 적재 중인 것으로 언론 보도(쾰른도이체차이퉁 등) ↳ 독일 당국, 비행 중 손상된 별도 항공기에 대한 추가 조사 진행 중
글로벌 · 교차자산 뉴스 5 건	• 중동 지역 외교장관, 이스라엘의 가자 의료·민간 인프라 공격 강력 비난 ↳ 사우디·이집트·UAE·터키·카타르·요르단·파키스탄·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의 공동성명 ↳ 의료·민간 인프라 공격 중단 촉구, 민간인 피해 지속 규탄 ↳ 이스라엘 총리실의 '현실 왜곡' 반박 • 캐나다 7 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 49.1, 2 개월 연속 수축 신호 유지 ↳ 6 월 47.1 에서 소폭 반등했으나 50 선(호황·침체 경계) 미달로 수축 신호 지속 ↳ 신규 수주도 3 개월 연속 50 미만으로 수요 부진 지속 ↳ 경제 불확실성이 기업 수요·심리 위축 초래, 투입 가격지수는 64.0(6 월 61.2)으로 상승해 원가 압력 여전 • Ineos, 유럽 화학산업 약세 속 4 억 유로 투자 ↳ 관세·에너지 충격·중국산 수출 증가로 서방 산업 수년 만에 최악, 유럽 화학산업은 2021 년 이후 산출량 약 20% 감소 ↳ 분석(Breakingviews): 산업 부진과 별개로 경제 데이터는 회복 신호도 포착, Ineos 의 투자 결정이 그 사례 • 이스라엘 중앙은행, 5~6 월 18 억 달러 외환 매입 후 7 월 매입 중단
인도 뉴스 4 건	• 인도 국회 위원회, 미국과의 양자무역협정 신속 체결 촉구 ↳ 의약품·첨단광물·스마트폰·엔지니어링 제품·자동차부품·화학·섬유·수산물·가죽·보석 등 주요 수출 산업의 시장 진출 안정화 및 예측 가능한 시장 접근성 확보 강조 ↳ 양국 관계자들이 협정 체결 임박을 여러 차례 언급해 온 상황 • 인도 정부채권, RBI 완화 신호 지지받으나 수익 실현·채권 공급 증가로 상승폭 제한 ↳ 벤치마크 6.94% 2036 년물 수익률 6.7666% 마감(전일 6.7722%), 8 월 3 일 이후 약 7bp 하락 후 박스권 진입 ↳ 금요일 정부채권 320 억 루피(약 33.6 억 달러) 신규 매각 예정으로 향후 채권 공급 압박 심화

권역	요약
	우려 • 인도 중앙은행, 비은행금융회사 규제 기준 개편 공시 ↳ 상층위(NBFC-UL) 지정 기관들에 규모 기반 규제 기준 적용, 금융 시스템 내 리스크 감독 체계 정비 • 인도 주식시장 소폭 상승 — 실적 호조·유가 안정·중동 외교 기대 ↳ Nifty 50 +0.05%(24,636), Sensex +0.48%(78,954.76) 마감, 주간 파생상품 만기와 새 폐장 경매 방식으로 지수 간 수렴성 이탈 및 변동성 확대 ↳ 6월 분기 기업 실적 개선 및 유가 안정이 투자 심리 지지
브라질 뉴스 8 건	• 브라질 기준금리 14%로 인하(4 연속 25bp) ↳ 전일(8월 6일) 인하, 인플레 둔화·경제 냉각 배경 ↳ Bradesco 등 주요 은행 CEO들의 제한적 통화정책 물가 억제 평가·추가 인하 기대 ↳ 현재 실질금리,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• 브라질 7월 무역수지 \$71억, 예상(\$84억)을 하회 ↳ 수출 \$341억(전년대비 +6.2%)는 가격 상승 주도, 거래량 축소 ↳ 수입 \$271억, 수입·수출 양측 거래량 감소세 • 라틴아메리카 통화 상승, 상품 회복과 중동 에너지 공급 안정화 배경 ↳ MSCI 라틴아메리카 외환지수 +0.3%, 주식지수 -0.4% 소폭 하락 ↳ 이란-오만 호르무즈 해협 항로 관련 양해 진행, 유가 +1.8% ↳ 멕시코 중앙은행, 기준금리 6.50% 동결
남미 기타 뉴스 8 건	• 아르헨티나 2026년 경제성장 전망 2.7%로 하향조정, 인플레 소폭 개선 ↳ 중앙은행 시장기대조사 기준, 2026년 성장률을 2.7%로 조정(직전 3.1%, -0.4pp), 연말 물가를 29.8%로 소폭 인하(직전 30.0%, -0.2pp) ↳ 7월 월별 인플레 2.0%, 긴축이 성장 억제와 물가 하강을 동시에 유도하는 추세 • 콜롬비아 중앙은행, 금리 인상 중단 후 추가 인상 필요성 강조
프론티어 뉴스 1 건	• 아프리카 대륙자유무역지역(AfCFTA) 사무국, 나이지리아 Bergmans와 \$31억 관세 현대화 양허협정 체결 ↳ 20년 기간 양허협정으로 Bergmans가 대륙 통합 관세 시스템 자금 조성·구축 담당 ↳ 50개 회원국의 역내 무역 촉진 및 관세 수입 누수 억제 목표 ↳ 디지털화된 관세 절차 표준화, 실시간 화물 추적 등 포함

출처: Reuters,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조재운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자료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,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